Journal of Fashion Business
Vol. 14, No. 4, pp.74~90(2010)

현대미술에 나타난 패브릭에 대한 고찰
- 08 광주 비엔날레 패브릭 작품 중심으로-

정형호* · 배수정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박사수료*,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A Study on Fabrics Shown in Contemporary Art
-Focused on Fabric Works in the Gwangju Biennale 2008-

Jung Hyungho* · Bae, Soojeong
Candidate for the Ph.D,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history of contemporary art in the 20th century can be said the history of changes. Today the variety of objects destroy the boundaries of each genre.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fashion and art that becomes closer by examining contemporary art in the Gwangju Biennale 2008 to enlarge the range of understanding of mutual communication between contemporary art and fabrics which are the object of fashion.

The research method wa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and expression methods of object fabrics shown in contemporary art through the review of papers published at home and abroad, related literatures, and Internet materials. Also, the meaning, technique, and methods of fabrics were analyzed from works introduced in the Gwangju Biennale 2008.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fabric was examined as the object of work in Gwangju Biennale 2008. As a result, it is found that fabric plays an important role in changing environment newly with more dynamic, abundant, and comfortable and softer feeling than any other artistic materials and enlarging the boundaries of artistic materials by exploring formative possibility. Furthermore, its multi-dimensional expression characteristic presents unbounded possibility.

Fabric which has long formed close relationship with human life has taken its place as one genre now. It departs from the past principles of fabric handicraft and the restriction of a classical norm and becomes characteristic of very wide-ranging selection of materials and free expression. Its soft and warm texture provides emotional stability for a human. Although the peculiarity of fabric as an active concept to human environment and new materials and technique based on the aesthetic consciousness of a human rely on the high development of industry, it is significant that artists' liberation from their concept and material sense is accompanied by the expression of freedom.

Key Words : Objet(오브제), fabric(패브릭), Contemporary(현대미술), Gwangju Biennale(광주비엔날레)

Corresponding author; Bae Soojeong, Tel. +82-62-530-1344, Fax. +82-62-530-1349
E-mail: sjbae@chonnam.ac.kr

Ⅰ. 머리말

1. 연구의 목적

프랑스의 미술 비평가 로제 보르디에(Roger Bordier, 1923~)[1)]는 “현대 미술사 전체가 오브제(objet)의 변천사이다”라고 규정할 만큼 오늘날 미술 양식이 재료의 다양성으로 인해 미술 각 장르간의 경계가 무너졌다.

오브제의 사용은 미술과 패션, 두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이 두 영역의 소통은 미술이 오브제 패브릭(Fabric)을 선택하고, 패션은 미술의 양식과 다양한 제작방식을 선택하면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미술영역에서의 부드러운 재료가 나타난 시점은 다다(Dada)의 콜라주(Co贈 ¨ ge), 초현실주의(Surrealism) 의 오토마티즘(Automatisme), 추상표현주의(abstract expressionism)의 액션 페인팅(action painting)등을 시작으로 ‘부드러운 조각(So 柸攀 塳 [illegible])’에 이르러 포스트미니멀리즘(postminimalism) 이후 더욱 부각하였다.

현대미술에서 부드러운 재질은 단순히 재질의 특성을 넘어 다양한 표현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고정관념의 거부로써 시작된 부드러운 조각의 등장은 견고하지 않은 유연한 재료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또 패션영역에서 살펴보면, 부드러운 오브제의 영향을 받은 의상이 피에르 가르뎅(Pierre Cardin), 잔드라 로즈(Zandra Rhodes, 1942~) 등에 의해 나타나기 시작했다. 패션은 시대의 반영이자 사회, 문화, 예술의 거울로서 부드러운 조각과 패션은 그들이 지닌 소재의 특성으로 인해 고정되고 세워져 있지 않은 동일한 맥락 안에 있는 예술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대형 미술관에서 상업적인 옷 전시는 그리 충격적이지는 않다. 오래 전 귀족들의 밀실에서만 즐길 수 있던 미술이, 현재에는 우리와 아주 밀접하게 다가와 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제품과 아트 사이를 오가는 패션의 역사가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예로 테이블이 스커트가 되는 후세인 샬라얀(Hüseyin Çağlayan, 1970~)의 의상, 소매가 네 개 달린 마르탱 마르지 엘라(Martin Margiela, 1957~)의 모피코트, 스커트 슈트로 변신하는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 1952~)의 트렌치코트 등은 옷이라는 개념을 넘어선 하나의 조형물로 인식된다.[2)]

미술과 패션 분야의 상관관계나 미술에서 영향을 받은 패션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즉 미술의 한 사조와 패션을 대입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패션영역에서는 아티스트를 분석하고 작품을 제작하거나, 그 조형성을 분석하는 정도에서 살펴 볼 수 있었고, 오브제로서 패브릭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그 중 현대 미술에서는 부드러운 조각(Soft Sculpture)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있었다.

심경보[3)]는 부드러운 조각에 대한 미술양식, 재료 표현방법 중 섬유, 고무, 라텍스, 종이, 비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작가를 분석하여 현대미술 속에 나타나는 오브제의 특성을 이용한 본인 작품을 제작하였다. 현기룡[4)]은 현대 섬유미술의 형성과 발달과정과 커미션아트의 제도화된 선진사례들을 예로 활발한 커미션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들의 실증적 분석과 작가별 작업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섬유예술가, 조각가, 건축가, 디자이너들의 합작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윤영[5)]은 켈리의 회화를 응용한 패브릭 디자인 개발 제시로써 현대미술과 오브제의 형성배경을 살펴보았다. 이규연[6)]은 부드러운 재료을 중첩한 본인 작품을 제작하는 연구를, 이권수[7)]는 부드러운 조각의 형성배경 및 재질적 표현경향, 재료의 역할을 고찰하였다. 안진우[8)]는 소프트 아트(soft art)를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페미니즘을 살펴보고 작가의 작품을 통해 변화된 미술 담론과 확장된 영역을 고찰하였다.

이처럼 현대미술과 패션의 커뮤니케이션, 즉 오브제로써의 패브릭을 살펴보면서 그 미적 가치와 현대미술을 활용한 디자인, 마케팅, 순수회화 등의 다방면 영역으로의 창의적 발상은 풍부한 창조적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해 온 것이 아트이기 때문이다.

오브제로서 패브릭이 패션과 현대미술의 관계가 포괄적으로 조명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2, 2004, 2006, 2008 광주비엔날레의 현대미술을 살펴보면서 현대 미술과 패션의 소재인 패브릭이

상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하며, 최근 점차 밀접해지고 있는 패션과 미술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현대미술과 패션의 커뮤니케이션을 살펴보기 위한 프로세스는 <그림 1>과 같다. 08광주비엔날레의 현대미술의 특징을 살펴보고, 패브릭을 활용한 현대미술작품 중 오브제로써의 특징을 살펴보며, 패브릭의 특징을 분석한다. 이에 현대미술과 패브릭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현대미술에 미치는 영향과 패션영역에서의 역할을 고찰하였다.

연구방법으로 국내외 발표된 논문이나 서적, 그 밖의 문헌을 통해 용어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고 현대미술에 나타난 오브제 패브릭의 특징과 표현방법 및 부드러운 조각을 살펴보았다. 또한 미술에서 패브릭 재료를 쓰는 양식을 찾아보고, 2002, 2004, 2006, 2008년 광주비엔날레에 소개된 작품을 통해 패브릭이 갖는 의미와 기법, 방식 등을 고찰하였다.

<그림 1> 연구 프로세스

연구범위는 미술에서는 각종 오브제를 쓰기 시작한 1910~1970년대 사조와 2002, 2004, 2006, 2008년 광주비엔날레 패브릭 작품에 한정하였다. 패션은 미술의 동시대와 현대패션을 살펴보았다. 이는 20세기 현대미술의 특징인 탈 장르화, 다원화적인 특성인 오브제의 표현방법 중 현대미술과 패션의 오브제인 패브릭에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Ⅱ. 현대미술과 패션의 오브제 패브릭 고찰

1. 오브제(Objet) 개념

라틴어 '오브젝툼(Objectum)'이 어원인 오브제(Objet)는 영어의 오브젝트(Object)와 같은 뜻[9]으로 '물체 또는 객체[10]'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브제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대게 보이거나 만지거나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 인식되는 것, 또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과 주제가 인지할 수 있는 물질적 또는 정신적인 것이다. 즉, 그것은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정신적인 것을 포함한 대상 혹은 객체라는 뜻을 품고 있다.[11] 따라서 미술에 있어 오브제란 어떤 대상이 우연적, 필연적 효과에 따라 작품의 소재가 될 때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용도나 의미에서 탈피해 새로운 대상성을 가지고 예술작품으로 전환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패션에 있어 오브제란 패션을 하나의 움직이는 조형물로 인식하고 표현의 창작성을 넓히는 객체라고 할 수 있다.

2. 오브제 패브릭 특성

직물(Fabric)은 독특한 질감을 가지고 있으며 그 두께에 따라 깊이감과 입체감을 나타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떠한 물체에 걸쳐지거나 놓여 지기도 하며 계획에 의해 오려지거나 여러 조각으로 잘려지고 또는 어떤 물체를 덮어서 감싸고 끈으로 묶는데 사용되기도 한다[12].

섬유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섬도, 비중, 강력성, 흡수성, 열전도성, 보온성, 강신성 등의 기계적 물리성과 내수성, 내열성, 내약품성, 염색성, 연소성, 용해성 등의 화학적 물성을 들 수 있다[13].

섬유의 종류는 그 생성과정에 따라 천연섬유와 합성섬유로 나누어진다. 천연섬유에는 식물섬유 · 동물섬유 · 광물섬유가 있으며, 동물섬유에는 양모 · 산양모 · 낙타털 · 캐시미어 등의 수모섬유와 광물섬유

에는 석면 등이 있다. 합성섬유에는 나일론, 합성아크릴, 합성 비닐론, 폴리에스틸, 폴리아미드 등 과 인조섬유로 분류할 수 있다. 천연섬유는 인류역사에서 가장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인조섬유가 공업화된 것은 1890년 이후지만 해마다 품질이 비약적으로 개선되었다.

섬유재료를 이용한 기법은 전통 기법과 여기서 탈피하여 새롭고 다양한 시도를 보여준다. 봉제 기법과 실을 이용하여 직조되지 않은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 묶기, 매달아두기, 매듭 맺기 등을 구사한 자연스런 오브제 표현기법 등이 있다.

섬유재료는 실의 여러 변형들인 로프와 노끈, 연방섬유, 슬리트 필름 등과 푸석푸석한 섬유인 사이잘삼과 느슨히 짜인 천연 양모 등 짐승의 털, 가죽, 종이, 나무비닐 등 조형성이 내포된 모든 물체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어 졌다.[14] 이는 시각적으로 부드럽다는 것 외 제한점 없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특성을 갖는다.

3. 오브제 패브릭를 활용한 현대미술

현대미술(現代美術, contemporary art)은 20세기 후반의 미술을 의미하는 말로서. 오늘날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현대미술의 개념은 좁은 의미에서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미술, 곧 20세기 후반기의 미술을 가리킨다[15]. 그 원천으로서 마네의 그림을 들 수 있는데, 그것은 회화에서의 2차원성, 즉 빛과 시각(視覺)을 중시하는 새로운 창작 세계가 그에게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야수파·입체파·추상미술에서는 깊이가 적은 평면적인 공간 속에서 정신의 회복이 시도되었고, 다다이즘의 반(反)예술적 경향과 초현실주의적 작품에서는 자기비판을 외재화(外在化)하고 시간·공간보다 관념과 시간의 표현이 강조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추상표현주의가 이 두 경향을 지향하고, 반조형(反造形)과 무의식의 공간에 정신표현을 하였으나, 60년대 들어 컬러 필드 페인팅을 제외하고, 네오 다다(Neo dada)[16], 팝 아트(Pop art)[17], 미니멀 아트(minimal art)[18], 콘셉추얼 아트, 퍼포먼스(performance)[19] 등 반 예술적 경향이 다시 활발해졌으며, 행위예술 등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20] 경향도 많이 나타났다[21].

미술영역에서의 섬유소재의 사용은 오브제 미술의 등장과 적극적으로 사용되었으며, 특히 1960년 이후 신사실주의, 아르테 포베라(Arte Povera)[22], 클래스 올덴버그(Claes Thure Oldenburg)[23]의 부드러운 조각(Soft Sculpture)[24], 크리스토 야바프(Chisto Javacheff)의 포장작업, 뷰렌(Daniel Buren)[25]의 장소의 작업, 요셉보이스(Joseph Beuys)[26]및 로버트 모리스(Robert morris)의 펠트 작업 등에서 적극적[27]으로 사용되었다.

팝 아트의 대표적 작가 중에 한 사람인 클래스 올덴버그는 재료와 새로운 이론의 확대, 새로운 기법, 부드러운 조각이라는 매우 독특한 표현양식의 작품을 만들어 현대의 입체미술을 대중화 시킨 최초의 작가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현대 산업사회의 생명력이 없는 문명의 일상용품에 인간의 피부처럼 부드럽고 살아 있는 조각을 만들고자 딱딱한 현대의 기계, 일상용품, 페스트 푸드 등을 천이나 비닐로 제작하여 대상이 지닌 본래의 성질을 새로운 재료로 바꾸어 전혀 다른 의미와 깊이를 지닌 작품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부드러운 조각(Soft Sculpture)은 현대 입체조각의 한 영역으로 확대 시켜왔고, 예술에서 오브제에 대한 개념은 다양한 영역으로 넓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유연한 연성재료를 쓰는 현대미술의 범주는 Soft art, Soft Sculpture, combine art 등 이다.

4. 현대미술과 현대패션의 오브제 패브릭 발생과 전개

1) 현대미술에서 오브제의 발생과 전개

피카소(Picasso, Pablo Ruiz y, 1881~1973)는 "예술은 그 자체가 진화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 그 변화된 개념으로부터 다른 표현 양식이 나올 뿐이다." 라는 말처럼 현대 미술의 새로운 재료와 기법은 고도화된 산업 발전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작가들이 자신의 개념과 재료적인 의식으로부터 해방됨과 동시에 자유로움의 표출이 동반되어졌다고 할 수 있다.

현대미술에서 부드러운 재료가 나타난 것은 다다(Dada)[28]의 콜라주, 초현실주의의 오토마티즘, 추상표현주의의 액션 페인팅 등을 시작으로 '부드러운 조각(Soft sculpture)'에 이르러 포스트미니멀리즘 이후 더욱 부각하였다. 부드러운 재료가 미술 매체로 등장하게 된 것은 입체주의의 콜라주를 비롯하여 파피에 콜레, 콤바인 아트[29]을 거쳐 앗상블라주, 아르테 포베라의 유형으로 나타났으며<표 1>, 이러한 패브릭과 예술성이 가미된 이미지나 패턴 등은 더욱 발전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대미술에서 부드러운 재질은 단순히 재질의 특성을 넘어 다양한 표현방식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고정관념의 거부로써 시작된 부드러운 조각의 등장은 견고하지 않은 유연한 재료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표 1> 현대미술 오브제 흐름

시기		예술양식	기법	아티스트	특성
1912s		-다다 입체주의, 미래주의	콜라쥬, 파피에 콜레, 레드메이드	만레이, 모리스헨리, 쿠르트 수비터스, 피카비아, 뒤샹, 피카소, G브라크	-1차 대전중 유럽에서 일어난 조형예술의 반항운동, 기존의 철학, 도덕, 미학을 부정 -작품에 오브제와 부드러운 섬유재료인 실, 천, 깃털, 봉대를 사용하여 은유적, 형태적 변형취함
1914s ~ 1917s		초현실주의	오토마티즘, 데페이즈망, 프로타쥬	알렉산더칼더	-절개선, 봉제선, 파이핑, 패치워크 사용한 면분할
1919s ~ 1940s		초현실주의 (Surrealisme), 추상표현주의 (Abstract Art)	오토마티즘 액션페인팅 프로타주, 데칼코마니	달리, 미로, 샤갈 에른스트말레비치, 칸딘스키, 몬드리안, 라일리	-꿈, 무의식의 세계 공상 등 비현실 세계를 표현, 프로타주, 데칼코마니 등 새로운 기법이 탄생
1940s ~4950s		추상표현주의 (Abstract Expressionlism)	액션 페인팅 -거칠게 살고 거칠게, 뿌리기 회화	잭슨폴록 한스호프만	-미국의 현대미술(1900초~1940s) -WW2의 충격에서 깨어나지 못한 시점에서 젊은 세대들이 본능에 의지한 형상작업을 통해 비이성적이고 에측 불허한 즉흥적인 작품 창조
Contemporary Art	1960s ~ 1980s	포스트미니멀리즘 입체주의, Pop-Art 미니멀리즘 (Minimalism) 신표현주의 (Neo- Expressionlism) 포스터모더니즘 (Post- modernism)	콜라주, 콤바인 아트, 앗상블라주, 설치미술 아르테포베라	로이리히텐슈타인, 앤디워홀, 먼레이, 팀뢰로프스, 장미셸 바스키아, 키스해링, 올덴버그, 크리스토 요셉보이스, 로버트 모리스 데미안 허스트 다카시무라카미, 나라요시모토	-사물의 본질을 가장 단순한 형태로 드러내어 꾸미고 장식하는 등 일체 행위를 배제 -아르테 포베라: '보잘것 없는' 재료들을 의도적으로 활용한 미술 -Pop-Art 추상표현주의 퇴색, 젊은 작가들이 거짓된 추상을 거부 - Minimalism (60-70s) : 추상표현주의의 과장된 감성과 팝의 천박함에 반발사조 -개념미술 : 보이지 않는 시각 미술, Process Art, 환경미술, Performance Atr (화가가 무대에서 자신의 몸을 제작도구화), 설치미술-Photorealism(극사실주의)-신표현주의 : 80s. 새로운 회화의 전성기. -포장작업, 펠트작업 -현재의 사조 : Postmodernism 서술적회화

2) 현대패션에서 오브제의 발생과 전개

18세기 말 산업혁명의 선두주자인 영국, 독일, 러시아의 급진적인 예술가들의 텍스타일 산업 성장과 20세기 초반의 산업화한 산업사회에서 섬유는 급격하게 증가된 인구로 인한, 실용성에 바탕을 두고 대량 생산된 물질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대규모로 산업화된 가장 첫 번째 재질이다[30].

현대패션에서 오브제의 도입은 초현실주의의 전성기인 1930년대에 시도되었다.[31] 오브제를 이용한 패션의 도입 계기는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1930대의 경제공황으로 패션에 관심을 갖기가 다소 어렵게 된 부유한 사람들에게 패션에 초현실적인 특성을 부여하여 이들의 관심을 다시 패션에 모아보려고 한데서 기인한다.[32] 두 번째로 이탈리아 복식디자이너 엘자 스키아파렐리(Elsa Schiaparelli, 1890~1973)의 활약을 들 수 있다. 그녀는 어떠한 요소이든지 해석하여 의복으로 나타내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33] 만레이, 피카비아, 달리 등의 초현실주의자들과의 교분을 통해 초현실주의적 복식을 시도하였다[34]. 그 시기의 활동한 대표적 패션디자이너들로는 폴 프와레(Paul Poiret), 쏘냐 들로네(Sonia Delaunay), 코코샤넬(Coco Chanal) 등을 들 수 있다.[35] 부드러운 오브제의 영향을 받은 의상이 피에르 가르뎅, 잔드라 로즈 등에 의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오브제는 구성적 측면, 즉 의복구성 방법을 사용한 면 분할과 문양적 측면인 아티스틱 프린트와 기하학적 추상 패턴을 차용하였다.

오늘날에는 패션과 회화, 조각의 혼합에서 두드러진 표현 방법이 실루엣, 색상, 면을 이용한 평면구성, 심플한 봇 터치, 선명한 색상, 만화, 문자, 낙서 등의 기호, 기성제품을 부착하는 콜라주 기법, 물감 뿌리기 기법, 반복된 형태의 사용, 3차원적 표현을 2차원의 패턴으로 표현, 사진을 이용한 프린터[36] 등을 들 수 있다. <표 2>[37]

20세기 미술사조와 더불어 발전된 오브제는 현대복식에 두 가지 양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첫째는 현실 제시로서 존재하는 사물을 재료에 제한 없이 부착하는 조형적 오브제이다. 둘째, 사물과 인간 내면의 무의식 세계까지 확장된 이미지 표상의 오브제이다[38]. 이상의 오브제 사용기법에는 첫째 회화적 화면 위에 인쇄물을 덧붙이는 빠삐에 꼴레는 패션에서는 천위에 가위로 자른 천들을 덧붙임으로서 디자이너의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39]. 셋째, 패션에 나타난 콜라주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패치워크의 기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조각의 천을 연결하여 큰 직물을 만들어내는 기법인 패치워크는 그 전통적인 기법에서의 변화는 없지만 사용 재료의 다양화 경향으로 인해 새로운 표현방법으로 인식되면서 20세기 패션에서 빈번히 사용되어지고 있다[40].

넷째, 레디메이드는 주변의 사물은 모두 예술이 되어 질 수 있는 예술에서의 레디메이드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와 기능을 갖는 일상적인 오브제를 패션의 표현수단으로 제시하였다[41].

패션에서의 오브제는 그 본래의 의미와 기능 외에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일상의 사물은 무엇이든 패션의 표현 재료가 되어 질 수 있는 가능성으로 패션의 표현영역을 넓히고 있다.

패션과 회화는 공통점이 많은 장르로 양자 간 유기적 밀접성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과거의 명화에 그치지 않고 동시대 아티스트 작품의 실험적인 조형성을 활용한 패션 디자인의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술적 이념들은 패션이라는 오브제로 재탄생되고 대량생산을 통해 미술이 바라던 대중화에 근접할 수 있다.[42]

패션은 시대의 반영이자 사회, 문화, 예술의 거울이다. 부드러운 조각과 패션은 그들이 지닌 소재의 특성으로 인해 고정되고 세워져 있지 않은 동일한 맥락 안에 있는 예술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 예로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조르조 아르마니'전이, 런던 빅토리아 앤 알버트 박물관에서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전시가 열렸다[43].

즉 아트는 디자인에 있어 가장 풍부한 창조적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 또 제품과 아트 사이를 오가는 패션의 역사가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예로 테이블이 스커트가 되는 후세인 샬라얀의 의상, 소매가 네 개 달린 마르탱 마르지엘라의 모피코트, 스커트 슈트로 변신하는 장 폴 고티에의 트렌치코트 등은 옷이라는 개념을 넘어선 하나의 조형물로 인식 된다[44].

<표 2> 현대패션에 나타난 오브제

분류		예술양식	아티스트	디자이너	특성
입체 장식적 측면		팝아트, 다다, 설치미술	데미안 허스트	D&G, 샤넬	앗상블라주, 설치작품 등의 이미지를 액세서리로 표현
구성적 측면		한정되지않음	호안미로, 알렉산더칼더	마르니, 장 폴 고티에	절개선, 봉제선, 파이핑, 패치워크 사용한 면분할
문양적측면	기하하적추상 패턴	구성주의, 시조형주의, 미니멀리즘, 옵아트, 오르피즘	말레비치, 칸딘스키, 몬드리안, 라일리	샤넬, 지암비스타 발리,크리스토퍼 케인, 에밀리오푸치, 앨스워스캘리, 알렉산더 맥퀸	기하학 기본도형의 형태 구성, 규칙적인 질서감
	표현적추상 패턴	추상표현주의, 표현주의, 상징주의	잭슨폴록, 한스 하르퉁	마르니, 크리스찬 라크르와, 클로에, 발렌시아가	아티스트의 주관을 표현한 해체적, 추상적 형태, 아티스틱 프린트에 영향
	트롱프뢰유 패턴	초현실주의	마이클 몰나	모스키노, 엘페슨깁슨, 안나수이	흑백의 대비, 원색 활용해 직조 또는 그려서 표현
	그래피티패턴	팝아트, 네오팝	장미셸 방스키아, 키스해링	존갈리아노, 발렌티노, 돌체앤가바나, 엘리키시모토	즉흥적 드로잉, 패턴, 로고, 문자활용
	사진이미지	사실주의	먼레이, 팀뢰로프스	랑방, 베르사체	형태 변형, 단순화 없이 원본 이미지를 패턴화
	만화적패턴	팝아트, 네오팝	다카시무라카미, 로이리히텐슈타인, 앤디워홀	마크제이콥스, 루이비통, 샤넬, D&G,, 카스텔바작	대중화된 이미지와 캐릭터의 평면, 단순, 유희화

오래 전 귀족들의 밀실에서만 즐길 수 있던 미술이, 현재에는 우리와 아주 밀접하게 다가와 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비엔날레로 보여지며 현대의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세계적 이슈의 담론의 장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III. 베니스 비엔날레와 광주비엔날레 작품과 오브제 패브릭의 커뮤니케이션

1. 비엔날레의 의미와 현황

비엔날레(Biennale)는 2년마다 열리는 미술 전람회, 2년 만에 한 번이라는 뜻이다. 이는 1893년 이

탈리아 베니스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 현대미술의 주요 발표, 실험무대가 되면서 이 용어가 널리 사용되었다[45]. 국제미술전람회로는 1895년에 창설되어 가장 오래된 베네치아비엔날레와, 1951년 창설된 상파울루비엔날레가 대표적인 비엔날레로서, 현대 미술 동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46]. 현재 비엔날레 형식으로 행해지는 미술행사는 전 세계적으로 120여개에 달하며 그 수만큼이나 비엔날레가 의미하는 폭은 넓고 다양하다[47]. 유럽은 베니스비엔날레의 유럽문명권의 중심의 패권주의 미술문화를 주장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자성으로 1951면 상파울로 비엔날레가 개최되었고 이후 1955년에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자존을 과시하고 과거 문화전통의 회복을 기원한다는 취지의 카셀도큐멘터가 설립되고, 1977년부터 10년 주기로 열리는 뮨스터 조각 프로젝트가 개최되었고, 1998년 베를린 비엔날레가 출범되었다[48]. 아시아는 1990년대에 타이페이 비엔날레를 시작으로 1995년 창설된 광주비엔날레, 상하이비엔날레가 생겨났고, 2001년 요코하마트리비엔날레가 탄생하였다[49].

비엔날레의 역할로는 시대적 패러다임과 함께 미술문화의 변화와 그 보폭을 측정케 하는 지진계 역할[50]과 장소를 이동함으로써 가치를 획득하는 일종의 문화적 노마드로서 지역과 지역, 국가와 국가를 연결하는 전지구적인 비엔날레는 지역과 국가의 차이를 문화적, 예술적 교류로 상호이해하며 지구적 공생 가능성의 길을 찾게 되어 자연스럽게 국제 교류의 학습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51].

2. 베니스 비엔날레의 배경

유럽은 르네상스를 통해 고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자각을 불러 일으켰고 17~18세기는 유럽 각국이 앞 다투어 로마와 그리스를 여행하는 이른바 대여행 선풍이 일어났고 13세기에 지중해 무역의 왕자로 부상하였으며, 15세기에는 포강 하류지대와 달마치아 연안, 그리스 본토와 주변 섬 일부를 소유하는 제국으로 성장했으며, 16~17세기 베네치아 화파를 길러낸 예술과 문화를 가꾸는 장소로서 유럽인들의 선망이며 최고의 여행목적지였다[52]. 이에 관하여 가장 사실적 비평을 책으로 남긴 영국의 비평가 로렌스 알로웨이(Lawrence alloway)는 “비엔날레는 베니스의 지식인들이 베니스를 국제적 차원의 영원한 향기를 가진 도시로 만들기 위한 문화 향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베니스 비엔날레의 출발은 파리만국 박람회를 모델로 고안된 국가관 전시형태로 시작되었으며 지역적 문화관광산업에 중점을 두고 탄생하였다. 그런 만큼 유럽문명권의 중심에서 서구 모더니즘 미술의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패권주의 미술문화를 주장하게 되었다[53]. 1900년대에 들어와 전시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1907년 벨기에관을 시발로 헝가리, 독일,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프랑스, 러시아, 스페인관이 세워지면서 현재 한국관을 비롯 29개 국가관이 설립되었다[54].

1) 2009 베니스 비엔날레 작품

전시 주제는 '세상 만들기'(Making Worlds), 스웨덴 출신 대니얼 번바움(Daniel Birnbaum, 1963~) 총감독은 "세계는 작가들에 의해 새롭게 창조될 수 있다"며 "베니스 비엔날레를 통해 창조의 과정을 보여[55]주었다.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은 인터넷(구글, 다음, 네이트, 네이버)으로 패브릭을 이용한 작품 총 4점의 사진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멕시코 헥터 사모라(Hector Zamora)의 작품으로 공기를 넣은 대형 풍선작업을 하였다<그림 2>[56]. 러시아 이리나 코리나(Irina Korina, 1977~)의 작품 "Fountain"으로서 모스크바 출생으로 그녀는 작품을 통해 매체와 이를 표현하는 형식 사이의 상호 긴장감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그림 3>[57]. 독일 토마스 슈테(Thomas Schutte's)의 "Efficiency Men 2005" 치과에서 쓰는 레진으로 해골과 패브릭을 이용한 작품이다[58]. 마지막으로 한국관의 양혜규(Yang, Hae-gue, 1971~)는 베를린과 서울 거주하며 활동하는 여류작가로서 ‘살림(sallim, 2009)’이라는 제목의 신작은 베를린에 있는 작가의 집 부엌을 실제 크기로 재현한 조각이다. 작가에게 살림이란 비사회-경제적인 공간으로, 모든 삶의 활동을 준비하고 기획하는 장소성을 함의하며 부엌은 그의 표현대로 ‘일’이라는 개념에 대해 사회의 효율과 생산성

이 부가해온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이며 따라서 타인, 바깥 세상, 그리고 자신의 작업을 다른 방식으로 상호 접촉 가능케 하는 공간이다[59].

위의 <표 3>과 같이 2009 베니스 비엔날레 작품 중 패브릭을 이용한 작품을 선별하여 정리하면 작품이 온전히 패브릭을 이용하지 않고 다양한 매체와 재료를 혼합한 패브릭 작품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광주비엔날레의 배경

광주비엔날레의 시작은 1995년부터 2년마다 개최되는 미술 전시회로써 2006년 9월 5일부터 65일간 열린 제6회 대회 때는 국내외 관람객 70여만 명이 찾았다. 대회 예산이 80억~100억 원으로 미술 행사로는 아6년 최대 규모다. 제7회 대회는 2008년 9~11월[60]에 열렸다.

2002 광주비엔날레 전시 주제는 멈춤(Pause)으로 31개국 325명, 4개 프로젝트(멈춤, 저기 이산의 땅, 집행유예, 접속)로 구성 되어있다.

2004 광주비엔날레 전시는 '먼지 한 톨 물 한 방울'의 주제로 동양적 사유의 담론을 하나의 표상으로 설정하여 생성과 소멸을 전제한 자연적 질서의 해석을 담았으며, 41개국 237명, 본 전시 1, 현장전 4로 구성되어 있다.

2006 광주비엔날레 전시는 '열풍변주곡(Fever Variations)' 주제로 아시아의 변화 발전을 대변하는 상징적 장소로서 광주를 진원지로 삼아 전통과 새로운 정체성, 과거와 현재, 세계화와 지역성간의 충돌 속에 나타나는 아시아 문화와 현대미술문화와의 관계를 담고 있다.

2008 광주비엔날레 전시는 '길 위에서', '제안', '끼워 넣기' 등 3개 섹션에 36개국 160명의 작가가 출품한 1천400여 점이 선보였다. 특정 주제 없이 지난 1년간 전 세계 곳곳에서 열린 화제전시를 모아 선보이는 '연례보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기존 주제 지향적 전시의 한계를 탈피하여 복합적이고 폭넓은 개념의 기획의도를 효과적으로 펼쳐내고 교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으며, 2년 주기 비엔날레의 특성에 따라 최근 1년 사이의 주요 전시와 미술현장, 사회문화의 흐름 및 이슈를 한 자리에 모아 성찰하면서 담론창출의 계기를 마련[61] 했다. 이는 현대미술의 공인된 작품들을 한자리에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대미술의 다른 장르의 예

<표 3> 2009 베니스비엔날레 53회 패브릭 작품

멕시코	러시아	독일	한국
<그림 2> 멕시코 Hector Zamora, http://kr.blog.yahoo.com	<그림 3>러시아, 이리나 코리나의 작품"Fountain", http://iaanart.co.kr	<그림 4> 독일 Thomas Schutte's 의 "Efficiency Men 2005" http://kr.blog.yahoo.com	<그림 5> Sallim, 2009,mixed media 양혜규(Yang,Hae-gue 1971~), 250 x 420 x 310 http://kr.blog.yahoo.

술과 공존함으로써 더욱 다양화되고 깊이 있는 미학적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기초적 자료를 줄 수 있었다.

1) 2008 광주비엔날레 작품

<그림 6>[62]는 한스하케(Haacke, Hans)의 "넓고 하얀 흐름(Wide White Flow)" 이다. 이 작품은 대형 실크 천에 바람을 불어 넣어 바닥에서 펄럭이게 한 작품으로, 324㎡ 크기의 전시장을 독차지하고 있으며, 갤러리 공간 안에서 물결치듯 움직이고, 관람객의 몸이 공기의 흐름과 부딪히면서 촉각적인 거대한 흐름이 압도적이다. 낙하산의 소재인 실크 천을 바닥에 깔고 뒤편에서 4대의 선풍기가 바람을 불어 넣어 패브릭이 펄럭이게 하여 관객의 시선을 압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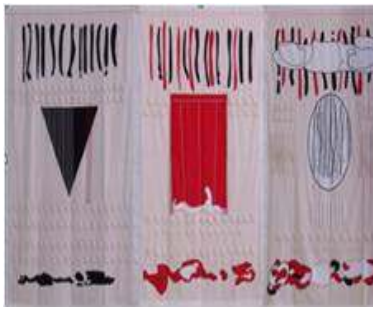
<그림 7>[63]은 한스하케의 1992년 작인 "빈민층(빈국)에서 부유층(부국)으로의 이동 (Trickle Up)"은 십자수가 놓아진 베게의 높이와 병열구조를 만들기 위해 개조한 낡은 소파의 닳아 해진 부분들은 기록의 물질성을 보여준다.

<그림 8>[64]는 스테파노 아리엔티(Stefano Arienti)는 "아시아의 해안(The Asian Shore)"에서 아시아 미술에 대한 그녀의 꾸준한 관심을 바탕으로 보스턴에 위치한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미술관의 소장품인 일본작품을 묘사한 드로잉과 깔개작업으로 이

<그림 6> "넓고 하얀 흐름 Wide White Flow"
http://www.gb.or.kr/

<그림 7> 부유층(부국)으로의 이동 Trickle Up,
http://www.gb.or.kr/

<그림 8> 스테파노 아리엔티(Stefano Arienti), The Asian Shore ,
http://www.gb.or.kr/



<그림 9> 압둘라예코나테 (Abdoulaye KonateF) '문화적 혼합성', http://www.gb.or.kr/

<그림 10> 시슬레이 자파(Xhafa, Sislej)/코소보, 뉴욕 . 유산, 꿈, 교환 그리고 경제에 관한 질문
http://www.gb.or.kr/

<그림 11> 알프레드 베네모저(Alfred Wenemoser) Plegaduras (folding),2007
http://www.gb.or.kr/

루어진 아시아의 해안(2007)을 선보였다. 기존에 존재하는 이미지와 인쇄물을 소재로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최소한의 제스처를 통해 재료를 변형시킨다. 또 깔개를 짜는 장인들의 디자인은 아니지만 작품의 기본구조의 일부인 패턴과 이미지들을 재현하기 위해 작품을 염색했고, 미술관의 중국관에 있는 기록사진 출력물을 이용한 새로운 드로잉 기법을 시도했다.

<그림 9>[65]는 대형 섬유작품을 통해 절제된 우아함과 강렬한 소통력을 표현하는 압둘라예 코나테(Abdoulaye KonateF)는 세계의 지정학적 계도와 문화적 기표들에 대한 세련된 해석을 말리의 전통 문화에서 비롯된 상징과 기법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문화적 혼합성' 이라는 세계의 화두에 직면했을 때의 문화적 전통의 적응 양상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 생산적 힘을 잃지 않는 전통의 원초적 힘을 찬미하고 있다.

<그림 10>[66]은 시슬레이 샤파(Xhafa, Sislej)의 '칼린(khaleen)'으로 100달러 지폐를 본 뜬 24㎡ 크기의 융단 작품으로, 제작기간이 5년으로 가장 긴 작품이다.

<그림 11>[67]은 오스트리아 출신인 작가 알프레드 베네모저(Wenemoser, Alfred)가 사용하는 재료로는 콘크리트로, 미니멀리스트 같은 원칙을 가지고 이 재료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전시된 작업은 "플레가듀라스(Plegaduras)" 혹은 "접기(foldings)"라고 불리는 시리즈로 사진, 문자 그대로 중력을 보여주는데 넓은 봉대 직물들을 콘크리트에 흠뻑 적신 후에 낮게 쌓아 단단하게 굳힌 후 전시장 바닥에 펼쳐서 전시했다.

이들 작품들의 주된 재료로 사용된 '천', 즉 섬유는 그 재료의 독자적 특성으로 인간과의 상호교류에서 감각을 유발할 수 있는 재질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역할로는 유연성, 인간성, 우연성을 들 수 있다.

2008년 광주 비엔날레 작품 중 패브릭을 소재로 한 작품을 살펴보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2008 광주 비엔날레 섬유작품

2008 광주비엔날레 섬유 작품			
작 품	오브제	작 품	오브제
	"넓고 하얀 흐름 Wide White Flow" / 324㎡ 크기 / 낙하산의 소재인 실크천 / 4대의 선풍기		압둘라예코나테(Abdoulaye KonateF) 직물은 그가 즐겨 사용하는 질료 '문화적 혼합성' 문화적 전통의 적응, 전통의 원초적 힘을 찬미
	부유층(부국)으로의 이동 Trickle Up 십자수가 놓아진 베게 낡은 소파		시슬레이 자파/코소보,뉴욕 100달러 형태의 양탄자. 유산, 꿈, 교환 그리고 경제에 관한 질문
	스테파노 아리엔티(Stefano Arienti), The Asian Shore 이탈리아, 밀라노 거주/작업, 2007 패턴과 이미지들을 재현하기 위해 작품을 염색 / 깔개		알프레드 베네모저(Alfred Wenemoser) Plegaduras (folding), 2007 봉대 직물들을 콘크리트에 흠뻑 적신 후에 낮게 쌓아 단단하게 굳힌 후 전시장 바닥-종종 부어서 만든 콘크리트 바닥 자체-에 펼쳐서 전시
- 과거의 직물공예가 갖는 원칙과 고전적인 규범의 제약에서 벗어나 광범위한 재료의 선택과 자유로운 표현이 특징 - 인간 환경에 적극적 개념으로 섬유라는 특수성과 인간의 미의식에 근거해 다루어지고 있다. - 섬유의 부드럽고 따뜻한 질감은 인간에게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표 5> 2002, 2004, 2006 광주비엔날레섬유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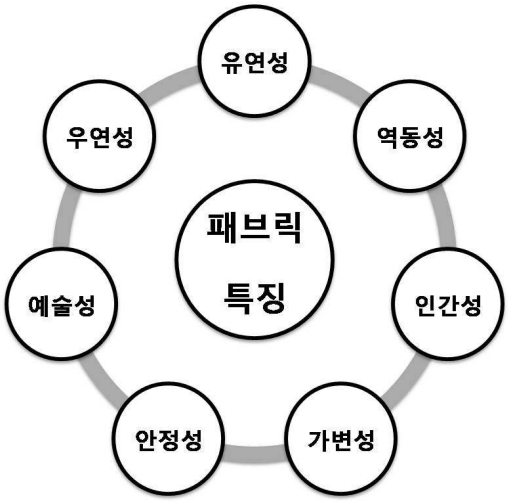
2002, 2004, 2006 광주비엔날FP 섬유작품		
	작품	내용
2002	가려진 하늘, 2002 빅 스니커즈, 2002	•가려진하늘 (Sheltered Sky), 에이에스 그룹, 러시아 •빅 스니커즈(Big Sneaker), 울라프 니콜라이, 독일 • 총 188개 중 13개의 패브릭 작품
2004	용(Dragon), 2004 과정, 2004	•용(Dragon), 애니쉬 카푸어(Anish Kapoor), 인도네시아 •과정(The Process), 아사엘젠(Asa Elzen), 스웨덴 •총 84개 중 2개의 패브릭 작품
2006	가발빌딩, 2006 공룡 알, 2006	•가발빌딩(Wig Building), 메샥가바 (Meshac Gaba) •공룡 알, 센유엔(Shen Yuan) •총 86개 중 2개의 패브릭 작품

2) 2002, 2004, 2006 비엔날레 작품

4회 2002 광주비엔날레 총 작품 수 188개 중 패브릭 작품은 13개였다. 또 5회 2004 광주비엔날레에서는 84개 중 2개의 패브릭 작품이 있었으며, 제6회 2006 광주비엔날레에서는 86개의 작품 중 2개의 패브릭 작품이 있었다. 이는 각 회마다 선정 주제와 선정된 작가의 작품 성향이 각기 다름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작품의 오브제로써 패브릭은 각 회 마다 조형적인 차이는 있지만,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은 큰 차이가 없었으며 아래 <표 5>[68]에 그 대표적인 예를 표로 만들었다.

4. 패브릭의 특징 분석 및 방향성



<그림 12> 패브릭 특성

2009 베니스 비엔날레, 2002~2008년 광주 비엔날레 작품 오브제로써 패브릭은 타 예술 소재에 비하여 역동적이며 어떠한 재료보다도 풍부, 편안,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는 특성으로 환경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조형적 가능성을 모색하여 예술 소재의 영역을 넓히는데 중요한 역할과 다차원적인 표현 형태는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림 12> 패브릭 특징과 같이 섬유의 부드럽고 따뜻한 질감은 인간에게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오래전부터 인간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온 섬유는 이제 한 장르로 정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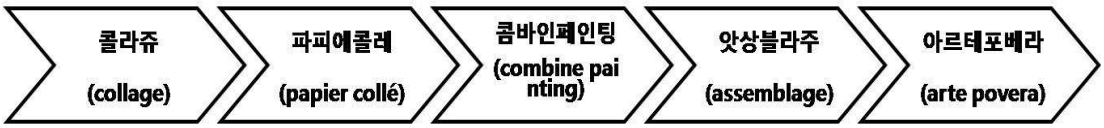
<그림 13>회화의 확장으로 입체파 화가들에 의해 도입된 파피에콜레(papiercolle)가 발전된 콜라주(collage)는 비예술적인 소재로 생각되었던 종이나 헝겊 등을 화면에 붙이는 기법으로 소재의 한계를 극복하게 되었다.

라우센버그의 콤바인 아트와 올덴버그의 소프트 스컬프쳐(Soft Sculpture)의 출현은 섬유예술의 입체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69] 이는 타피스트리로 대표되던 전통적인 2차원의 조형개념을 탈피하여 3차원의 오브제 표현은 섬유 조형의 다차원적인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표 6>[70]는 예술영역과 패션영역에서 오브제 사용기법과 조형적 특성을 분석한 표이다.

오브제 미술은 패션에 적합한 기법으로 차용, 변용되면서 다양화된 기법으로 확대 발전됨으로서 패션만의 독특한 기법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살펴보았다.

패브릭의 예술영역에서의 발전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전통적인 타피스트리로 장식적, 실용적인 것. 두 번째는 팝아트의 클래스 올덴버그의 소프트 스컬프쳐(soft sculpture)의 영향으로 발전된 것으로서 이는 시각적인 면이 촉각적인 측면으로 발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3> 오브제 발달순서

<표 6> 오브제 사용기법과 조형적 특성

표현기법	예술에서의 사용기법	패션에서의 사용기법	예술과 패션의 오브제의 조형적 특성	
			유사점	차이점
파피에콜레	회화적 평면위에 인쇄물을 덧붙임	자른 천을 덧붙임 기존 의복 재구성	새로운 질감 부여 표현재료 확대	예술:물감과 동일 패션:새로운 형태의 재구성
꼴라쥬	일상의 사물을 모아 붙임	복식에 직접 부착 패치워크	직접 부착하여 메시지 전달 소재확장과 표현영역 확대	예술:의도 없이 모음 패션:패치워크로 연결해 확대된 직물 개념
레디메이드	오브제의 물체적 측면만을 제시	본래의 기능이 있는 사물을 패션으로 제시	사물의 기능을 제거하고 물체만 제시	패션:일상의 사물은 모두 패션화 할 수 있다는 가능성
실크스크린, 판화	대중적 오브제들을 의도된 기법을 통해 대량생산	타이포그라피 그라피티	대중적 이미지, 친근감있는 디자인, 대중과 직접대화시도	예술:대중적이미지를 오브제화 패션:의복 자체를 오브제화하여 메시지 전달

오브제의 발달로 20세기 패션디자인에 있어서 소재의 확장과 동시에 예술영역의 한계를 넘었다. 다차원의 섬유 조형 작품은 다양한 변화와 예술적 표현의 가능성으로 공간 환경조형물로 예술성을 부여하게 되었다.

과거의 직물공예가 갖는 원칙과 고전적인 규범의 제약에서 벗어나 광범위한 재료의 선택과 자유로운 표현이 특징이다. 이러한 오브제의 개념은 패션 행위 자체가 오브제화 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의상을 쉐입프드 캔버스(shaped canvas), 혹은 소프트 스컬프쳐(Soft Sculpture)로 인식하게 하고 있다[71].

패브릭은 인간 환경에 적극적 개념으로 섬유라는 특수성과 인간의 미의식에 근거해 다루어지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첫째 어떠한 공간에 섬유 특유의 재질감은 작품의 풍요로운 공간제공, 둘째 광대한 스케일과 에너지를 포함한 작품제작 가능, 셋째 일정한 형식이나 경향에 관계없이 공간을 위한 다차원의 작품제작, 넷째 공간의 구성요소(빛, 음악, 색채, 운동 등)와 기술적 테크놀러지와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작품제작이 보여 지고 있다.

오늘날 오브제의 문제는 다양한 실험의식으로 출현되고 있으며, 장르의 구분 없이 다양하고 종합적인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Ⅴ. 맺음말

오래전부터 인간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온 섬유는 이제 한 장르로 정착했다. 과거의 직물공예가 갖는 원칙과 고전적인 규범의 제약에서 벗어나 광범위한 재료의 선택과 자유로운 표현이 특징이다. 섬유의 부드럽고 따뜻한 질감은 인간에게 정신적 안전감을 제공한다. 인간 환경에 적극적 개념으로 섬유라는 특수성과 인간의 미의식에 근거해 다루어지고 있다.

2009 베니스 비엔날레, 2002~2008 광주 비엔날레 작품 중 오브제로써 패브릭은 타 예술 소재에 비하여 역동적이며 어떤 재료보다도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는 특성으로 환경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조형적 가능성을 모색하여 예술 소재의 영역을 넓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다차원적인 표현 형태는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즉 미술영역에서 패브릭의 쓰임은 1910년 그 시작을 알 수 있었고, 현대 미술속의 난해함은 우리의 복잡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인 측면의 바탕위에 혼재되어있으며, 다원주의라 불리며 예술의 한 소재로써 다양한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다. 부드러운 재료인 패브릭의 발전은 디자인과 의상미술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 오면서 예술과 포하의 만남쉴과 통하고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살펴 볼 수 있었다.

이를 정리하면

첫 째. 일정한 형식이나 경향에 관계없이 공간을 위한 다차원의 작품제작

둘 째. 어떠한 공간에 섬유 특유의 재질감은 보다 작품을 풍요로운 공간제공

셋 째. 광대한 스케일과 에너지를 포함한 작품제작 가능

넷 째. 공간의 구성요소(빛, 음악, 색채, 운동 등)와 현 경향은 과학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작품제작이 보여 지고 있다.

현대 미술의 새로운 재료와 기법은 고도화된 산업발전에 의존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작가들이 자신의 개념과 재료적인 의식으로부터 해방됨과 동시에 자유로움의 표출이 동반되어졌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09 베니스 비엔날레, 2002~2008년 광주 비엔날레 섬유를 이용한 작품의 부드러운 재료인 패브릭은 패션의 주재료로써 미술 재료로 쓰기 이전에 존재해 있었다. 미술영역의 패러다임(paradigm) 전환으로 인한 재료의 선택으로 쓰여 짐은 상호 소통을 위해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한 패션은 쉐입프드 캔버스(shaped canvas), 혹은 소프트 스컬프쳐(Soft Sculpture)로 그 표현 방법 및 다양한 재료로 영역이 넓어 졌으며, 아트의 대표적 표현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 간 혼합, 융합적 발전은 더욱 공조하게 될 것이며, 현대미술과 패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들로 시대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사고의 확대, 기획과 방안 모색에 기

초자료로서 일조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김동호(2006), “현대미술에 있어서 혼용된 오브제와 하이브리드 오브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7.
2) 김정혜(2005), *패션이 사랑한 미술,* (주)아트북스, p.5.
3) 심경보(2005), “Soft sculpture에 관한 연구 : 1960년대 이후 오브제 미술 속에 나타난 부드러운 재질 양식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 현기룡(1997), “Commission Art에 관한 연구: 섬유예술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최윤영(2004), “켈리의 회화/오브제 조형요소를 응용한 패브릭 디자인”,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이규연(2005), “부드러운 재료의 중첩표현 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이권수(2003), “재료적인 측면에서 본 Soft Sculpture 표현양식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안진우(2003), “Soft Art에 대한 연구 : 조각 작품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김동호, op.cit., p.7.
10) “오브제”, *네이버 백과사전,* 자료검색일 2010. 03.19, 자료출처 http://100.naver.com
11) 박찬국 外(1995), *현대미술의 기초개념*, 재원, p.186.
12) 심경보(2005), “Soft sculpture에 관한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9.
13) 송번수(1985), *섬유예술*, 월간디자인출판부, p. 211.
14) 이권수(2003), “재료적인 측면에서 본 Soft Sculpture 표현양식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3.
15) “현대미술”*네이버백과사전*, 자료검색일 2009. 10. 23, 자료출처 http://100.naver.com/100.nhn? docid=189221
16) “네오 다다(Neo dada)”, *네이버백과사전,* 자료검색일 2009. 10. 22, 자료출처 http://100.naver.com/100.nhn?docid=37575
17) “팝아트(Popart)”, *다음사전*, 자료검색일2009. 10. 22, 자료출처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23p1566a
18) “미니멀 아트(minimal art)”, *시사상식사전*, 자료검색일 2009. 10. 22 자료출처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7XXXX4489
19) “퍼포먼스(performance)”, *위키기반열린백과*, 자료검색일 2009. 10. 22 자료출처 http://opentory.joins.com/index.php/%ED%8D%BC%ED%8F%AC%EB%A8%BC%EC%8A%A4
20)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네이버백과사전*, 자료검색일 2009. 09. 12 자료출처 http://100.naver.com/100.nhn?docid=212069
21) “현대미술”, (3. 10, 09:36), *위키기반열린백과*, 자료검색일 2009. 08. 10, 자료출처 http://www.opentory.com
22) “아르테 포베라(Arte Povera)”, 이탈리아어로 '가난한 미술' 또는 '빈약한 미술'이라는 의미이다. 1967년 이탈리아의 미술 비평가이며 큐레이터인 제르마노 첼란트(Germano Celant)에 의해 만들어진 용어로 '보잘 것 없는' 재료들을 의도적으로 활용한 미술을 말한다. *네이버백과사전,* 자료검색일 2009. 10. 22, 자료출처 http://100.naver.com/100.nhn?docid=860821
23) “클래스 올덴버그(Claes Thure Oldenburg, 1929~)”, *네이버인물검색*, 자료검색일 2009. 10. 22, 자료출처 http://people.search.naver.com
24) “부드러운 조각(Soft Sculpture)”, *김성근홈페이지(킴스갤러리),* 자료검색일 2009. 10. 22 자료출처 http://www.kimart.pe.kr/Lesson
25) “다니엘 뷔렝”(Daniel Buren, 1938 ~) 프랑스

Boulogne-sur-Seine 출생. 개념미술가 *네이버 카페*, 자료검색일 2009. 10. 22 자료출처 http://cafe.naver.com/artmonde/5064

26) "요셉 보이스(Joseph Beuys, 1921~1986)", *네이버백과사전*, 자료검색일 2009. 10. 22 자료출처 http://people.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txc&where=people_profile&ie=utf8&query=%EC%9A%94%EC%85%89%20%EB%B3%B4%EC%9D%B4%EC%8A%A4&os=174399

27) 윤민희(2002), "부드러운 재질과 여성주의 미학", *현대미술사연구, 14(1)*, pp.33-55.

28) "다다, 초현실주의 이해",(2007. 06. 09) 다다(Dada-1916~1922) 1차 대전에 저항한 허무주의예술운동, *해피캠퍼스*, 자료검색일 2010. 01. 22 자료출처 http://ref.daum.net/item/11133098

29) 콤바인 아트(Combine Art)처음 상표나 벽지, 천 조각, 사진 등 주변의 간단한 오브제를 붙이던 콜라주는 시간이 지나면서 재료와 범위를 더욱 넓혀나갑니다. 급기야 라우센버그는 산양과 나뭇조각, 폐타이어까지도 그림에 붙여 버립니다. 엄숙한 추상표현주의의 전통을 거부한 이 그림은 말이 그림이지 그림의 차원을 벗어나 그림 조각이 되어버리고 이런 양식을 콤바인 아트(Combine Art) 또는 삼차원 회화라고 부르게 되고 콤바인 아트를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표현력을 극대화한 것이 정크 아트(Junk Art)입니다. *다음카페(그림사랑동호회)*, 자료검색일 2010. 1. 22, 자료출처 http://cafe.daum.net/alo1467/2b9N/11

30) 심경보, op. cit., p.16.

31) 한국디자인학회(편)(1997), *디자인학연구 22*, p.523.

32) Ibid.,, p.523, White P, Elsa Schiaparelli (1986), *"London Aurum Press"*, p.23.

33) Ibid.,, p.523, Ibid.,, p.74.

34) 최윤미(1993), "복식에 표현된 초현실주의 양식 및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 17(1)*, p.146.

35) 원명심(2008), "아르데코 패션과 미술사조", *기초조형학연구, 9(1)*, p.502.

36) 백정현, 배수정(2010), "현대패션에 나타난 Contemporary Art Inspiration 연구", *패션비즈니스학회, 14(1)*, p.73.

37) Ibid., p. 157. <표 2>재구성

38) 김선희(1997), "오브제 개념에 의한 현대복식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39) 김지희, 유태순(2003),"20세기 패션 디자이늬 조형성 표현방법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5(1)*, p. 20.

40) Ibid., p.21.

41) Ibid., p.22.

42) 백정현(2009), "문화·예술과 현대패션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현상",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68

43) 김정혜(2005), op.cit., p.4.

44) Ibid., p.5.

45) 김지호(2004). "베니스비엔날레 전시개념의 변화와 특성에 관한 연구 : 45회(1995)부터 50회(2003) 전시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4.

46) "비엔날레", (05.14, 11:16), *위키기반열린백과*, 자료검색일 2009. 8. 3, 자료출처 http://www.opentory.com

47) 김지호, op.cit., p.4.

48) Ibid., p.5.

49) Ibid., p.7.

50) Ibid., p.4.

51) 김홍희(2002), "90년대 비서구권 신생 비엔날레 사례연구- 현대미술의 용기, 국제미술의 현장 비엔날레", *현대미술학논문집, 6*, pp.205-206.

52) 김지호, op.cit., p.11.

53) Ibid.,, p.5.

54) 이용우, "미술 100년 베니스비엔날레 예술행보", (1995. 7), *미술세계*, p.42.

55) "베니스비엔날레", (2009. 06. 07), *매일경제*, 자료검색일 2010. 02. 30, 자료출처 http://crazy-art.co.kr/rankup_board/show_detail.php?code=25&list_no=7449&page=4&nums

=2314&que=&page=1&PHPSESSID=1e4a435701b83a75381adc09c292f94c
56) 자료검색일 2010. 1. 30, 자료출처 http://kr.blog.yahoo.com/kjchon10/1456.html?p=1&pm=l&tc=8&tt=1269632814
57) 자료검색일 2010. 1. 30, 자료출처 http://iaanart.co.kr/story/1/search/tg/keyword/%EB%B2%A0%EB%8B%88%EC%8A%A4
58) 자료검색일 2010. 1. 30, 자료출처 http://kr.blog.yahoo.com/kjchon10/1456.html?p=1&pm=l&tc=8&tt=1269632814
59) "양혜규작품"(2009. 6.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료검색일 2010. 1. 30, 자료출처 https://www.arko.or.kr/arkoinfo01/arkoinfo_090101.jsp?NT_ID=10&flag=VIEW&SEQ_ID=126144&
60) "광주비엔날레", (06. 09,14:39), *위키기반열린백과*, 자료검색일 2009. 08. 15, 자료출처 http://www.opentory.com/index.php/
61) "2008 광주비엔날레" 자료검색일 2009. 8. 26, 자료출처 http://www.gb.or.kr
62) *네이버포토갤러리*, 자료검색일 2009. 8. 26, 자료출처 http://photo.naver.com/view/2008090800094116238
63) *네이버포토갤러리*, 자료검색일 2009. 8. 26, 자료출처 http://photo.naver.com/view/2008090800094116238
64) *네이버포토갤러리*, 자료검색일 2009. 8. 26, 자료출처 http://photo.naver.com/view/2008090800094116238
65) *네이버포토갤러리*, 자료검색일 2009. 8. 26, 자료출처 http://photo.naver.com/view/2008090800094116238
66) *네이버포토갤러리*, 자료검색일 2009. 8. 26, 자료출처 http://photo.naver.com/view/2008090800094116238
67) *네이버포토갤러리*, 자료검색일 2009. 8. 26, 자료출처 http://photo.naver.com/view/2008090800094116238
68) "광주비엔날레 작품" 자료검색일 2010. 1. 30, 자료출처 http://www.gb.or.kr
69) 김홍명(1998), "환경조형으로서의 섬유조형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조형대학 논총, 2(2)*, pp.77-100.
70) 김지희, 유태순(2003), "20세기 패션 디자인의 조형성 표현방법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5(1)*, p.23.
71) 김지희, 유태순, Ibid., p.17.

접수일(2009년 12월 4일)
수정일(1차 : 2010년 2월 1일, 2차 : 3월 30일)
게재확정일(2010년 4월 5일)